

“아시아 재도약 위해선 보편가치 ‘공유·긴밀 공조’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개회사

기후기술허브 설립 합의 MOU
국가 간 회복·연대·개혁 강조

경제 불확실성 극복해 나가고
생산방식 등 소비행태 바뀌어
고령화 등 대응엔 새로운 접근법
必 경험·노하우 바탕 ADB 활동 지원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바로 자유, 개방, 연대의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긴밀한 국가 간 공조에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하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ADB는 빈곤감축과 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팬데믹, 기후변화, 저성장 등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ADB도 국제사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달라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DB는 빈곤, 기후변화, 도시화, 노령화, 불평등 확대 등의 개발문제 해소를 위한 2030 중장기 전략(Strategic 2030)을 발표했다. 아시아지역의 풍요롭고(Prosperous) 포용적(Inclusive)이며 복원력(Resilient)이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아시아-태평양지역

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아사카와 마사츠크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공·민간 기후전문가를 선별·연결해 ADB 기후분야 사업시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아시아가 재도약 하기 위해선 각 국가 간 ▲회복 ▲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구조적 차이)에 따른 조달비용 격차와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 되고,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글로벌 저성장 기

조로부터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복을 위해선 자유, 개방,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간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건연대, 디지털 심화, 기후협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기구, 국가간 협의체, 고위급 대화 등 다층적인 협력구조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방식과 소비행태를 바꿔야 하고, 디지털 심화,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강대국이나 유능한 집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DB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데이터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해”

이창용 한은총재 인터뷰

美 금융불안, 韓 우려할 수준 아니야
원화절하 상황 개선될 것 기대
원화 약세보다 美 달러 강세요인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원화자세의 약세요인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의 강세요인 때문”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왑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 거버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예금보통공사(FDI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후 JP모건이 인수기로 했

다.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빠르게 인수되며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해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은행 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한국의 시장구조가 다르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을 보면 장기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만기구조가 훨씬 짧고 대출도 변동금리가 많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시장구조도 단점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동금리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입장에서는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며 “연체율이나 상환금 증가

등 부동산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누적된 기준금리의 효과를 지표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화정책 변동(인하)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렸고, 인상의 누적된 영향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데이터에 따라 추가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고,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목표치(2%대)보다 높기 상태이기 때

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 인하는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화 약세요인보다 미국 달러화 강세요인이 크다”며 “하루하루의 통화변동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재는 “4월은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대한 배당금 지급이 많은 달”이라며 “4월 이후에는 원화 절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4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는 것 같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환율 압박은 작년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尹 “국가 간 견고한 협력·연대로 새로운 모델 만들어 나가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 축사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원칙으로
인-태 지역 경제 개발 협력 적극 기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

며 축사를 했다.

ADB 연차총회 한국 개최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 이후 세 번째로, 이번 연차총회는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한국과 ADB의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

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에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

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돼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